

데스크 시각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얼마전 어디서 많이 보았던 TV 뉴스에 시선을 쬐었다. 대안 입법원(국회)에서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난투극이 벌어졌...

'여소야대'에 기대와 우려 교차

우리나라도 제21대 국회가 이제 막을 내리고 제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안 재결'을 놓고 여야 간 힘 겨루기만 하다 막을 내렸다...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가운데 161곳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과 합당을 마무리하면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171석을 차지한 원내 1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돌풍'에 힘입어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다. 또 진보당(3석), 새로운미래(1석), 새진보연합(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야권을 모두 합치면 191석이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도 여야 간 협치보다는 또 다시 팽팽한 대립각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입법원처럼 '동물 국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국회는 초선 비중이 많다는 점에서 앞선 21대 국회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무엇보다도 22대 국회는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잡는 것이 우선인 터라 우리 정치권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끊임없는 정쟁을 벌이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는 진리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따라서 여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질책하며 민생 우선의 정책에 '올인'해야 한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승리에 취해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쟁(政爭) 벗어나 '국민 속으로'

수도권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곳이 많았는데 서울에서 적게는 0.8%에서 1.6%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간신히 승리한 선거구가 20여개에 이른다. 앞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8.45%포인트 차이로 대승을 거뒀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어떤 행태로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민과 함께'라는 엄숙한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 정치는 국민을 무시하고 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민에게 배우고 국민과 같이 가라는 가르침이다...

저출산에 지방소멸 위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따른 민생경제 침체 등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내일 임기를 시작하는 선량(選良)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현안이다.

은펜칼럼



고성혁 시인

"동생 목소리 듣고 잤어서 전화했네"라며 웃던 누님이 채 두 시간도 되지 않아 "자네 화순 집으로 내려가고 잤으니 안 되겠는가?"라고 울먹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손주새끼들과 향군에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인생이란 이리 불공평한 것인가. 고통스런 어머니와 누님의 삶, 그리고 해거름 같은 나의 삶. 그런 생각 때 문이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내 곁으로 이장하기로 했다. 가신 지 이십 년이 넘었으니 이제 이승과 저승의 구분을 넘어 아주 자연으로 돌아가시도록 하

우리는 어디까지 알까

는 것, 그게 내 마지막 할 일이었다. 파묘하고 어머니의 뼈를 거두었다. 수습한 뼈를 쇠 양동이에 넣고 불붙여 태우고 부수고 뿜고. 하지만 불편한 내 심사와 달리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은 무심하기만 했다...

그러다 잉어 떼를 본 것이다. 동네 앞을 굽어쳐 흐르는 지석강가였다. 강둑을 걷고 있는데 강물에서 연거푸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가를 내려다보니 물풀이 우묵하게 자란, 강물이 휘돌아 물살이 느리게 흐르는 곳에서 커다란 잉어들이 파다이고 있었다...

그 생각은 불췌 며칠 전의 병아리들로 이어졌다. 어미가 스무 하루를 품은 날, 몇 번이나 동지를 들여다봐도 움직임이 없더니 다음 날 두어 녀석이 어미 품 안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그것들을 지키고자 한껏 날개를 세우는 어미닭의 모성과 녀석들의 순정한 눈빛이 러니. 가슴에 환한 불이 들어왔다...

뛰어오르고, 어떤 놈은 어미와 입을 맞추고, 어떤 놈은 제 어미의 깃털에 숨고. 하지만 며칠 뒤 그 아릅답고 순정한 풍경 뒤의 숨겨진 진실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깨어나지 못한 나머지 네 개의 알 속에도 다 된 병아리들의 형용이 주검으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었다. 자연의 섭리는 어디서건 거침없이 흐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껏 세상이 이어질 수 있었다. 인간이란 그 안의 한갓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밑물과 써물처럼, 오름과 내림처럼 우리 삶과 죽음 또한 세상을 위한 자연스러운 작동 기제였으므로 어머니도 누님도 그리고 나도 세상 안의 한갓 티끌로서 그러저러 살아갈 일이었다...

침방대는 잉어 떼를 보다 눈을 돌리니 주름살투성이 아내가 강물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인연도 세상의 이치 안에 있었다. 생판 모른 사람으로 만나 그러저러 부대끼며 살아온 사십년. 부모 역할도 자식 된 도리도 모르고, 이웃으로서 동료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또 얼마간 우리 앞에 드리운 알지 못할 섭리대로 살아갈 것이었다...

기고



박안수 남광주농협사외이사·경제혁신사

이팝나무 꽃이 만발하면 그해 농사는 풍년이 든다고 한다. 올해 역시 가로수로 심어놓은 이팝나무 꽃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걸 보고 풍요로운 가을을 생각했다. 사람들은 화사하게 피어난 이팝나무 꽃송이를 보며 흰 쌀밥을 떠올리기도 한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 이번 총선에서 아직도 많은 후보들이 출신 고향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지나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으로 지금의 물리적인 고향의 의미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각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작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귀농·귀촌은 물론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특단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인구 증가마저 정체돼 전남 지역 인구는 이제 180만 명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필자의 고향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개교 10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 분주하지만 현재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어린시절의 추억을 함께 한 모교는 언제까지 존속할지 염려가 앞선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밟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내용이 감동적인 작품이다. 지난 시절 연탄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연료의 대명사였다. 학창시절 지취할 당시 새끼줄로 묶은 구공탄을 구입해 취사와 난방을 했던 기억이 있으며 연탄가스에 중독돼 결석한 친구들도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석탄을 생산·공급했던 화순 광업소가 지난 2월 폐광이 결정되고, 아울러 우리에게 익숙한 광주의 유명 연탄공장도 문을 닫았다는 뉴스를 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과거 읍·면에는 한두 군데의 우체국이 있어 전보, 전화, 전신, 저금, 보험을 취급했었다. 시대적인 흐름에

금용은 물론 택배까지 취급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택배 물량 감소 등 경영에 압박을 받아 농촌 소재 우체국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저축이 마땅하던 초등학교 시절 우체국 학생저금에 가입해 졸업 당시 학생으로서 목돈을 만졌던 기쁨을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할 것 같다.

구한말인 1885년부터 시작했던 115정보서비스가 이메일과 휴대전화 보급으로 올 2월말 138년 만에 사라졌다. 외지에서 학교 다닐 때 매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오는 학자금 전신환, 기별 때나 슬픈 때나 소통과 알림의 대명사였던 전보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2·3년 전 은행들이 비효율적인 점포를 통폐합하고 동네마다 운영했던 현금자동인출기기마저 손익을 맞출 수가 없다는 이유로 하루에 4대 가량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비싼 수수료를 내고 거래해야 하는 편의점에 차지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예전 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던 공중전화 박스도 거의 자취를 감추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정겨운 것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점점 사라져 가는 현실이 아쉽다.

社說

호남권 경쟁력 위해 상생협의체 가동해야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선 7기 때 중단된 상생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14년 출범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광주·전남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매년 개최됐지만 2022년 7월 중단 이후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중단된 계기는 민선 7기 때인 2018년 8월 광주·전남·무안군이 체결한 '광주 민간공항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전 협약'을 광주시가 파기하면서 불신이 쌓였기 때문이었다. 민선 7기 때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고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이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무안군의 공공공항 이전 결사 반대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생협의체 재 가동이 절실한 이유는 호남권의 경쟁력이 타광역자치단체에 밀리면서 존재감이 더욱 약화되고 있어서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넘어 메가시티로 나아가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대구·경북이 인구 500만 명의 특별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통해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미국 연방제 수준으로 대구·경북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충청권도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자치단체가 메가시티를 표방하며 최근 행안부로부터 특별 지자체 승인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까지 자치도로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광주·전남만 고립될 우려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전남도 실무진이 상생발전위원회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빠른 시일내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나아가 전북도까지 아우르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남들은 문쳐서 파이를 키우는데도 호남만 각자도생한다면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지방소멸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뻔하다.

5·18조사위, 제대로 된 종합보고서로 답하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다음달 27일 '종합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진상조사위가 작성하고,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는 등 정부에서 인증하는 국가 차원의 최초 보고서이자 역사자료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말 4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17개 직권조사 사항 결과를 담은 개별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개별보고서에는 또 다른 왜곡·편향에 악용될 수 있는 오류까지 실려 있어 부실 논란이 일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종합 보고서' 또한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진상조사위의 출범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렇지만 진상조사위는 출범 초기 본 조사 활동 대신 기존 자료를 수집해 정리·분석하고, 청문회 등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신근부 핵심인 전두환·노태

우씨에 대한 대면 조사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광주일보에는 진상조사위 출범 초기부터 문제점을 부단히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광주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는 진상조사위의 활동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부진한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했다. 오월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해 자성을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규명하지 못한 5·18 진실을 담은 '종합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출범시 발표명령 체계의 실제, 민간인 살상,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암매장·행방치 찾기 등에 대한 규명 작업을 약속했다. 진상조사위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통해 5·18 왜곡과 편향은 종식되어야 한다. 진상조사위는 제대로 된 '종합 보고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현저하게 의견이 상반되는 사람의 행동이나 물건의 상태를 이르는 '극과 극'이나 말과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의 '모순(矛盾)'처럼 모순된 관계를 형용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상태나 상황을 강조하는 긍정적 인 차원의 말본새(말하는 태도나 모양새)를 '모순어법'이라고 한다. 언어를 서로 모순되게 표현함으로써 상황의 특이성을 강조하고 글의 맛과 맛을 극대화하는 언어 표현법 중 하나다.

그림 사이먼&가펄의 유명한 노래 '침묵의 소리'라든가, 일

글로벌 교육

이 글로컬을 내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표적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순어법은 문학에서와는 달리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말하는 이의 진의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발상난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 모순어법의 영어식 표현인 '옥시모론'(Oxymoron)과 유사한 영어식 조합이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라는 의미의 '글로벌'이 이슈가 되면서 일상화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달콤한 슬픔' '지원섭'이 글로컬을 내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표적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순어법은 문학에서와는 달리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말하는 이의 진의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발상난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 모순어법의 영어식 표현인 '옥시모론'(Oxymoron)과 유사한 영어식 조합이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라는 의미의 '글로벌'이 이슈가 되면서 일상화한 용어라 할 수 있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